

익산 쌍릉 주변서 백제 건물지 2동 확인

발굴조사서 길이 30m 규모... 익산 쌍릉 연관된 특수한 성격 건물지로 추정

익산에 위치한 쌍릉 주변에서 대형건물지가 확인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발굴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쌍릉(사적 제87호) 정비예정구역에서 쌍릉 관련 시설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지 2동이 확인됐다.

이번 정비예정구역은 익산 쌍릉과 연결한 구릉의 동쪽에 해당되는 곳이다.

이 곳은 지난 2009년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인근 지역 발굴조사에서도 백제 사비시기의 연화문 막새를 포함해 녹유벼루편, 전달린토기 등이 출토된 바 있다.

발굴조사에서는 길이 30m에 이르는 대형건물지 2동을 비롯해 수혈유구 등이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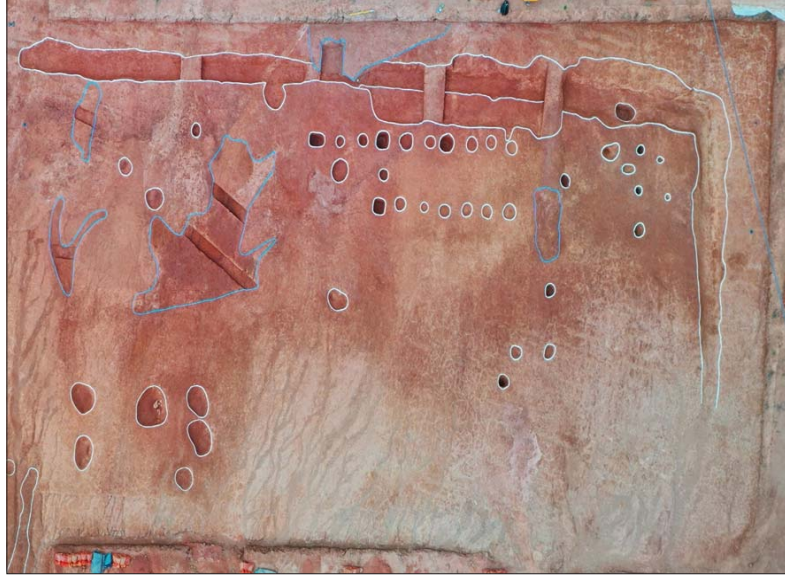
건물지는 모두 기둥을 이용해 지상에 조성한 지상식 건물지로 경사면 위쪽에는 유수(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상유구를 만들고 내부에는 기둥구멍(柱孔)을 배치한 형태다.

1호 건물지는 길이 35m, 최대너비 11m 내외이며 백제 사비시기에 해당하는 벼루조각, 대형 뚜껑편, 인장이 찍힌 기와 등과 함께 통일신라 인화문토기 조각이 출토됐다.

2호 건물지 규모는 길이 27m, 최대너비 10m 내외로 남서쪽 구상유구가 끝나는 지점에 집수정(우물)을 확인했다.

2호 건물지 구상유구(도랑시설) 내부에서도 백제 사비시기의 토기조각과 통일신라의 인화문 토기조각이 발굴됐다.

시의 마한연구소는 대형건물지가 내부에 부뚜막(화덕) 시설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비취 일반 거주 시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둥을 이용한 지상식 건물의 구조, 내부에서 출토된 벼루, 대형의 토기조각 등으로 볼 때 익산 쌍릉과 연관된 특수한 성격의 건물지로 추정하고 있다.



익산에 위치한 쌍릉 주변에서 대형건물지가 확인됐다.

때 익산 쌍릉과 연관된 특수한 성격의 건물지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로 볼 때 백제 사비시기에 조성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일정 시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왕릉과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 송전탑 지하화 등을 실시하고 정비 전 쌍릉이나 기타 능원 관련 시설 확인을 위한 학술발굴조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소극장 전통예술 공연 '이색산조의 밤'

서학예술극장서 29일 진행

오는 29일 7시 30분 서학예술극장에서 '이색산조의 밤' 공연이 펼쳐진다.

이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서학예술극장에서 주관하는 2021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인 '소극장에서 맛나는 전통예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산조(散調)는 한자 그대로 해석되는 '허튼가락'이 아닌 전통음악가의 손에 의해 평생을 걸쳐 다듬어지는 음악으로 전통예술에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음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이색산조의 밤'은 기존 기악중심 산조를 과감히 탈피하여 평과리, 태평소, 모듬북, 대북으로 구성된 산조를 최초로 연주한다.

우선 농악과 사물놀이, 동해안별신굿, 경기도당굿과 타악작곡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전통음악을 소화하며 차세대 평과리 명인으로 가장 손꼽히는 윤용준씨의 평과리 산조다. 평과리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음량이 크며, 단순한 악기에 매우 복잡한 연주법이 존재하는 타악기다.

대한민국 최초 태평소합주 창시자이며 '취선악(吹旋樂)' 대표인 이시준씨의 태평소산조는 산조선율에 태평소 특유의 주법을 살린 구성으로 독주악기로써 태평소의 매력을 한껏 발산할 예정이다.

모듬북 연주자로 다방면에서 활동중인 최상진씨의 모듬북산조는 '연습과정에서 호흡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지속하던 중 우연히 보게 된 공(ball)이 튀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공이 가진 역동성과 크고 작은 움직임이 모듬북의 음색과 강약을 통해 음화(音畵)시간이라는 각오다.

마지막으로 대북연주자로 활발히 활동중이며, 대북연주에 전통장단을 선구적으로



이색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순하씨의 대북산조다. 대북산조는 대북으로 흔히 연주되지 않은 다양한 장단을 산조로 구성하여, 인간이 겪는 시련과 이를 이겨내는 존엄한 인간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번 '이색산조의 밤'을 기획한 서학예술극장의 이영숙 대표는 "산조야말로 전통음악의 가장 중요한 뿌리며, 멈추지 않고 흐르는 거대한 강줄기와 같다"며 "산조는 머물러있지 않고 끊임없이 전승되고 창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승이 활발히 이뤄지는데 비해 새로운 산조는 만나기 어렵고 특히 타악기로 산조가 연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이번 이색산조의 밤을 통해 평소 만나기 힘들던 타악기와 태평소 산조를 소개 할 수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차후 이색산조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다양한 주제로 만나는 4주간의 '전주비빔밥축제' 호응

3주 차까지 프로그램 참여자 1000여명 돌파 · 유튜브 합산 뷰어 수 18만 뷰 기록... 30~31일 마지막 주제 운영

4주간의 맛의 축제로 탈바꿈한 '전주비빔밥축제'가 주말 시민과 여행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개막해 3주 차까지 진행된 전주비빔밥축제 '월드비빔워크'가 프로그램별 사전예약 경쟁률은 최대 125:1로 프로그램 참여자가 1000여명을 돌파, 유튜브 합산 뷰어 수가 18만 뷰를 기록했다.

'워크제' 형식으로 새롭게 변신한 전주비빔밥축제는 △비빔워크(커피의 날) △비빔워크(아내의 날) △단팥찜주먹(남편의 날) △월드비빔워크(가족의 날) 등 매주 다른 주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찾아가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오는 30일과 31일에는 2021 전주비빔밥축제의 마지막 주제인 '월드워크(가족의 날)'를 운영할 예정으로, '부모님과 식사' 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캠페인 홍보영상이 8000뷰를 돌파하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월드워크'에서는 △전세계 먹거리들이 모두 모이는 '미식할로윈' △전주음식 명인과 함께하는 '맛콘서트&체합' △음식을 맛보며 공연을 즐기는 '맛콘 △고즈넌한 한옥 공간에서 음식을 즐기는 '한옥피크닉' △한강교길 빈 점포를 활용한 특별전시 등이 진행된다. 서해안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영리한 축제를 목표로 삼았는데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소규모 사전예약제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을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시민들과 관광객,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 예약 및 세부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비빔밥축제 홈페이지(worldbibtamweek.coopy.io)를 참고하거나 전주비빔밥축제 사무국(063-283-11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추진 자문위원회 열어

김제시는 지난 25일 시청 상형실에서 제3차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추진 자문위원회 회의와 갖고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건립 사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에 들어갔다.

위원들은 행정, 예술, 학문, 전시, 건축 분야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전시관 건립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사업 추진 경과 설명, 전시관 필요성, 기증 유물의 활용, 기증 활성화 방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김제가 간직한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인 서예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호남 근현대 서단의 근간이 된 서예가들이 태어나 활동한 곳이 김제라는 점에서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의 타당성이 충분하며, 사라져가는 서예 문화를 보존하고, 연구·전시하여 서예 문화의 부흥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제서예문화전시관의 운영에 있어 시민들이 서예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여 시민의

문화적·교육적 욕구 충족 및 문화발전 기여에 이바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제서예문화전시관은 향교 앞 교통 일원, 연면적 2,244㎡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실 내에는 서예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지역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획전시실 등이 설치된다.

시는 하반기에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전시관 건립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2022년도 상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미술관 건립 협의 및 사전평가 신청·심의,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2023년도에 착공해 2024년까지 2년간 전시실 조성 등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제=곽도태 기자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정기 현장공연 비대면으로 열린다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회장 김봉호)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군의회 등이 후원하는 제19회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2호) 정기 현장공연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시관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금과들소리 전승·발전에 힘써온 이수자 운영백씨와 회원 60여 명이 참여하여 거행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공연 실황은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공연에 앞서 개최식에는 황승주 순창군수와 신용균 순창군의회 의장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고, 군의원과 각 사회단체장 등 내빈들도 격

려차 방문할 예정이다.

금과들소리보존회 김봉호 회장은 "500여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금과들소리는 우리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조상들의 삶의 애환을 엿볼 수 있다"며,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애정을 갖고 함께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 현장공연은 매년 6월에 개최되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는 9월에 개최되었고, 올해도 연기되어 29일에 열리게 됐다. 물품과 모래는 소리, 모심기, 감매기 소리, 장원질 소리 순으로 진행되어 힘든 농사일을 품앗이를 통해 극복하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순창=이영환 기자

전주대 박물관, 강연·체험프로그램 진행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김건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 당신의 평안한 일상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특별전시와 연계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시는 조선시대 안부를 묻는 선비들의 편지 및 각종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실시된 민간 예방법 등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는 각종 유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4인의 강사들이 비대면 온라인 강연도 진행한다. 온라인 강연은 유튜브 '전주대학교 박물관' 채널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선조들이 비누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조물럭 비누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은성 기자

국립태권도박물관장에 송의정 전 부산시립박물관장 임명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국립태권도박물관 운영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26일 국립태권도박물관장에 송의정 전 부산시립박물관장을 임명했다.

신임 송의정 국립태권도박물관장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립박물관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이다. 국립광주박물관장과 국립김해박물관장, 국립부여박물관장을 역임했고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장,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송의정 관장은 "태권도 전문 박물관인 국립태권도박물관을 맡게 되어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태권도와 전통무예 역사 연구를 통해 태권



도가 가진 무형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국립태권도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무주=전문식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사회적기업

작업복
단체복

여성기업

판촉물
기념품

안전화
안전용품

사무용 가구
파티션, 앵글,
선반 제작

명찰, 로고
각종 인쇄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